



# 효 이야기





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나이든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.  
아들은 나이든 어머니를 위해 매일 산에 가 나무를 해서 장에 갔다 팔았지요.



“어머니, 장에  
나가 나무를  
팔고 올 테니,  
어머니께선  
집에서 쉬시고  
계세요.”  
“그래, 그래.  
알았다.  
조심해서  
다녀 오너라.”





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이 올 시간이 되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마을 입구로 나가서 기다리기로 했지요.

“아니, 올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왜 보이지 않누?”



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만큼 오고 있는지 궁금하여,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로 했지요.

“저기 오는 사람이 우리 아들 석봉이가 맞나?”

어머니는 목을 더 길게 빼고 아들이 오나 보았어요.





“아이고, 우리 석봉이가 맞구나!  
석봉아~ 나무 팔고 오느라 얼마나  
고생이 많았누?  
아이고, 내 강아지. 이리 오너라.”  
“어머니, 집에서 기다리시지.  
다리 아프게 여기까지  
왜 나오셨어요?  
어머니가 좋아하시는  
인절미를 사 왔어요.  
얼른 들어가세요.”



아들은 지게를 내려 놓으며, 어머니께 말했어요.  
“어머니, 다리 아프실 텐데 이 지게에 오르시지요”



“아이고, 됐다.  
너도 다리  
아플 텐데,  
난 괜찮여~”

“아닙니다.  
얼른 앉으세요.”

“그럼, 우리  
석봉이 등에 한번  
앉아 가 볼까?”  
이렇게 모자는 즐겁게  
집으로 돌아가서,  
행복하게 살았습니다.





친(親)

나무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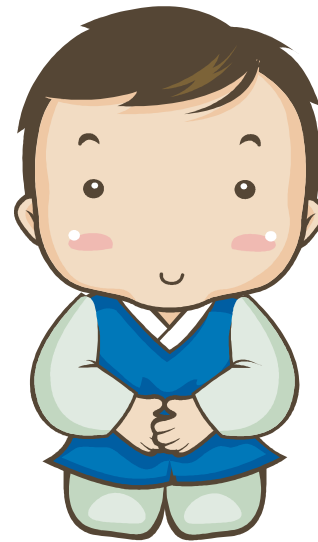


어버이를  
지게에  
지고 가는  
모습



## 효도(孝道)란 무엇일까요?

부모님을 사랑하고  
공경하는 마음으로  
예절 바르게  
행동하는 것





# 내가 실천하고 있는 효도





# 효도하계습니다

